



김호석화백의
회복속 선지식
법정 스님

스님처럼 삶이 그렇듯 죽음에 충실하고 싶다

최근 많은 시간을 내 자신을 위해 투자했다. 혼자 명상에 잠긴 적이 많았다. 자기 삶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악으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단단함이 있다는 것이 힘이었다. 돌이켜보니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

현대 사회에서 나의 삶과 인간을 이해하고 나아가 나를 통해 대상을 이해하는 것이 어찌 말처럼 쉬운 일이던가?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고독한 시간이 자기와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자기 스스로 담론하고 떨어내면서 진취성을 잡아내는 시간이었다. 어쩌면 자유로움에 대한 동경은 스스로에게 체화 되도록 이끌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스님께서 남긴 글들을 읽으며 불현 듯 지나온 경험의 잔상이 떠나지 않았다. 농사철이다. 농부는 모를 심기 위해 흙을 갈아엎고 물을 댄다. 논바닥을 고르게 하기 위해 썰레질을 하고 한편으로 논물이 새 나가는 구멍을 메우며 논둑을 다

심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인간이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아, 자기 공간에 대한 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가르침으로 다가왔다. 참 아름다웠고 경건했다.

나는 법정스님의 글들을 읽으며 이런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인간은 자기가 인식한 것, 좋다고 생각한 것의 이미지가 강하다. 그 이미지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편견이다.

속세란 자기만 존재하는 세계이다. 상대가 있지만 오욕칠정의 파도 속에서 울고 웃는 것이 아닌가? 같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상대를 자기 소유로 만들어 버리는 현실이 학교이고 삶의 교과서이다.

집착을 놓고 자유로움을 찾는 것, 물질적 욕망을 내려놓지만 자족, 검박,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무소유 일 것이다.

무소유, 불교적으로 보면 성립하기 어렵다. 부처는 한쪽으로 치우쳐 말하지 않았다. 내가 아는 한 불교는 어떤 것도 인정하거나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라 했다.

법정 스님은 충분히 가질 수 있었으나 갖지 않았고 높아질 수 있었으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은일했다. 안으로는 마음의 여유를 얻고 고고함을 지켰다. 삶은 깨끗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존심과 정신의 자유를 만족시켜 주며 누리게 했다. 스님은 버리고 떠났지만 명성은 널리 알려졌다.

스님은 맑게 살면서 맑음을 찬양했다. 더러운 것을 지적하며 더럽게 사는 것을 쳐 내는 역할을 했다.

자신의 삶과 유리되지 않고 감싸고 있는 자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러면서 안으로는 공고해지거나 밖으로는 한없이 경계를 허무는 자유자재의 삶은 자기 수행의 결과일 것이다. 그것이 자기 향상이고 희망이며 긍정이다.

나는 스님의 말씀을 덮으면서 우리 시대에 스님과 같은 대선사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시대 여전히 법정 스님의 정신은 유효하다. 나의 이런 희망이 나무꾼 대선사를 그리게 했다.

내가 만난 나무꾼은 나는 나이고 너는 너였다. 칭찬과 고마움도, 원망도 추켜세움도 없고 자연을 낮추어 보지도 않았다. 때 되면 밥 먹고 시간 되면 산에 나무하러 간다. 이런 생활이 편하고 바랄 것이 없다. 시비나 고저장단도 없다. 자기 본분에 충실할 뿐이다. 그러면서도 고뇌나 번뇌가 없다. 삶이 그렇듯 그저 죽음에 대해서도 충실할 것이다. 그림자를 벗 삼아 무정한 사물과도 교류하는 삶, 세상 어느 곳이나 모두가 도량이고 수행처이다. 대 해탈이고 윤회이고 자유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대선사가 있다.



‘나무꾼 대선사’ 불교는 당신한테 있습니다. 당신한테 있는 불교를 찾으십시오



‘관음’ 풍경은 고양이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고있다.

“
집착을 놓고 자유로움을 찾는 것
물질적 욕망을 내려놓지만
자족, 검박, 만족하는 것이
스님의 가르침 무소유일 것이다.
”

듣는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마친 후 아버지께서는 논 가까이에 있는 대나무를 낫으로 툭툭 거칠게 쳐 준비를 마친 눈에 세운다. 그리고 대통 속에 물을 채우고 논 주변에 개울가에 핀 짙레꽃 가지를 잘라 꽃아 놓았다. 어느 때에는 베비 꽃을 꽃아두기도 했다. 대통은 천연 꽃병이었다. 나는 이런 행위에 대해 물어 보지는 않았다. 그저 농사를 짓기 위해 준비가 끝난 논에 대한 정감함과 생명의 아름다움 그리고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생각했다. 다르게는 길썬을 지나는 사람에게 화식을 전달하자는 의도도 있다고 추정할 뿐이었다. 모두가 생활의 건강함이요 아름다움이다.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일상의 맑고 투명한 마음들이다.

나는 이 일상적인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지도 않았다. 그저 농사 준비를 할 때마다 본능적으로 이런 행위를 보았고 느꼈을 뿐이었다.

어느 해인가 아버지께서는 이런 연례행사에 대해 말씀하셨다.
“자기가 소유하고 일을 하는 공간에 대한 공경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신간 실증설 5개국어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출연한 펜을 들어 일시에 써내려간 실증설! 실증한 이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도리로 가득찬 이 책이 드디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더하여 5개국어로 편찬되었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 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음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 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한 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구운			
가루	자색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색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색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oy.co.kr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근우테크(주)**

전용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주)**

나트센 KW-B4D300DP(덤프&리프트 겸용)

나트센 KW-BS200

4륜구동의 강력한 파워

360° 제자리 회전
평지 200kg 운반가능

“전용운반차 1회 충전으로 3~4일 운전 가능”

서스펜션 (강력한 추진력)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재수 운반!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3. 저렴한 유지비!
4. 안전한 연동 설치 작업대!
5. 소음 걱정 끝~!

사찰 사용 모습

경사지 공양 재수 운반 | 고소 연동 설치

전자브레이크 장착으로 내리막도 안전 | 오르막 오를 시 수행유지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문의전화 : 010-7518-7854,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